

CJ, 미국판 '씨니' 만든다

CJ ENM이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엠지엠(MGM)과 함께 한국 영화 '씨니' (2011)와 '수상한 그녀' (2014) 미국판인 'Bye Bye Bye' 와 'Ms. Granny' 를 제작한다. CJ ENM이 이들 스튜디오와 손잡고 한국 영화 리메이크 버전을 공동제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판 '씨니' 인 'Bye Bye Bye' 는 미국 코미디언 케빈 하트가 수장인 제작사 하트비트와 CJ ENM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 HBO, 아마존 등 미국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본가 에이미 아니오비가 각본을 맡았고, 내년 하반기 크랭크인하는 것이 목표다.

'수상한 그녀' 리메이크작인 'Ms. Granny' 는 영화 제작부터 감독·작가·배우를 겸하고 있는 타일러 페리가 보유한 타일러 페리 스튜디오, 글로벌 스튜디오 엠지엠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 개발에 들어간다.

고경범 CJ ENM 영화사업본부 해외사업부장은

“'007 시리즈' '벤허' '스타 이즈 본' '호빗 시리즈' 등을 배출한 엠지엠 측이 논의 초기 단계부터 '수상한 그녀' 의 스토리텔링에 깊은 관심을 보내 왔다” 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에 한국 영화를 수출하거나 리메이크 판권을 판매하긴 했으나 미국 현지에서 제작사로 직접 작품을 만들고 배급까지 하는 건 CJ ENM이 유일하다.

'레옹' 립 베송 감독, 또 성 추문 스캔들

'레옹' '제5원소'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영화감독 겸 제작자인 립 베송(59, 사진)을 둘러싼 새로운 성 추문이 터져 나왔다.



AFP통신은 지난달 28일 베송이 운영하는 파리영화학교 학생 등 5명이 베송 감독에게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한 일이 있다고 폭로하며 '미 투' (Me Too) 대열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베송에게 성폭행 등의 피해를 봤다고 나선 여성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지난 5월 여배우 샌드 반 로이(27)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베송은 지난 7월에도 3명의 다른 여성이 그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혹을 프랑스 탐사보도 매체인 미디어파르를 통해 제기해 곤욕을 치렀다.

베송이제작한 '택시5' 에 '샌디' 역으로도 출연했던 반 로이는 지난 5월 파리의 한 호텔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베송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베송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지난 7월 폭로에 나섰던 한 여성(49)은 베송이 여러 차례 유사 성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0~2005년 베송 영화의 캐스팅을 담당했던 이 여성은 “자주 그런 요구를 받았다.” 면서 “한번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는데 강제로 키스하려 해 저항했지만 가슴과 엉덩이를 마구 만졌다.” 고 했었다.

이번에도 미디어파르 보도로 새롭게 드러난 5명의 피해자는 베송을 위해 일했던 개인비서, 파리영화학교 학생 2명, 베송이 운영하는 영화사 '유로파코프' (EuropaCorp) 전 직원이다.

그린북, NBR 선정 '올해의 영화'

로드 무비 '그린북(Green Book)' (감독 피터 파렐리)이 오스카상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

지난달 27일 전미비평가협회(NBR)는 올해의 영화로 그린북을 선정했다. 또 이 작품에 출연한 비고 모르텐센을 최우수 남우주연으로 뽑았다. 그린북은 캐나다의 토론토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바 있다.

그린북은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클래식 피아니스트 돈 셸리가 1962년 인종차별주의자인 이탈리아계 운전사(비고 모르텐센 분)가 모는 차를 타고 남부 지역을 순회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 이 리메이크한 '스타 탄생' (감독 브래들리 쿠퍼) 최우수감독상과 함께 최우수 여우상(레이디 가가), 최우수 남우조연상(샘 엘리어트) 등에 선정됐으며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Crazy Rich Asians)' 은 최우수 앙상블상, 미국의 2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인 루스 베디어 킨스버그의 연대기를 다룬 'RBG' 는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작품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각본상과 최우수 만화영화상은 '퍼스트 리폼드(First Reformed)' 와 '인크레더블 2' 에 돌아갔고 폴란드 영화 '콜드 워(Cold War)' 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로 평가받았다. 시상식은 내년 1월 8일 뉴욕에서 열린다.

1240호 숫자퍼즐 정답								
3	5	7	2	6	9	4	8	1
8	2	4	5	3	1	6	7	9
6	1	9	4	7	8	5	2	3
1	4	8	6	2	7	3	9	5
9	3	2	8	1	5	7	4	6
5	7	6	9	4	3	8	1	2
4	6	1	3	8	2	9	5	7
2	8	5	7	9	6	1	3	4
7	9	3	1	5	4	2	6	8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운명적인 결과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필자의 단골인 60대의 K 여사님이 계시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사업수단이 좋아서 크게 재산의 축적을 이루었고 이제는 사업을 접고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 어느 날 필자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임대업을 하는 건물을 팔고 예전에 자기가 원래 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임대업이 따분하던 차에 예전처럼 다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건넨 말은 “부인께서 예전에 사업을 하던 시절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젊은 나이였고 또 그 당시의 운(運)의 흐름이 사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운(運)의 흐름이었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현재 운(運)의 흐름이 사업적으로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K 여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원래 하던 사업만큼은 지금도 자신이 있어서 다시 해보고 싶은데...”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힘들게 마음 고생하면서 돈을 까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까먹어도 놀면서 편안하게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있는 재산마저 전부 다 날리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될까요?”라고 약간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필자를 쳐다본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말은 “선택은 부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훗날 운명적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래도 이분은 복(福)이 있어서 그런지 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대한 욕심을 접어서 화(禍)를 면했다.

★ 사주명리·풍수·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